승해(adhimukti)에 대한 고찰
-야쇼미트라 주석을 중심으로-

하영수 (금강대학교 사회복지불교학과 박사과정)

국문요약

adhimukti는 한문 번역어만도 勝解 혹은 信解를 비롯해 거의 서른에 가까운 번역어가 있어 일관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지닌 adhimukti(勝解/信解)에 대해 『구사론』*Abhidharma-koaśabhāṣya* 및 그에 대한 야쇼미트라(Yaśomitra)의 주석서 *Sphuṭa-arthā-Abhidharmkośavyākhyā*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사론』에서 심소로서 등장하는 adhimukti에 대해 야쇼미트라는 세 가지 양상의 adhimukti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쇼미트라가 기술한 세 가지 adhimukti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물론 adhimukti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8권 (2010. 12) 191p~220p

www.kci.go.kr

러나, 야쇼미트라가 제시하고 있는 adhimukti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사꾸라베 하지메(桜部　健)의 연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adhimukti에 대해 유관 문헌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와 더불어 야쇼미트라의 학파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본 연구를 통해 야쇼미트라가 adhimukti의 다양한 양상을 매우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가운데 일부는 대승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승해/신해(adhimokṣa/adhimukti), 열정/희구(ruci), 세친, 구사론, 야쇼미트라, 구사석론, 보살지.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勝解[1](혹은 信解, adhimukti/adhimokṣa)라는 개념을 야쇼미트라(Yaśomitra)의 주석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勝解(adhimukti)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밝히자면,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에서는 adhimokṣa(승해)가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고 있는데 반해[2], 야쇼미트라(Yaśomitra)의 주석서 *Sphuṭārthā*–

1) 범어로는 adhimukti/adhimokṣa, 한역으로는 주로 勝解 혹은 信解로 번역된다. 한역의 勝解와 信解는 어느 정도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어의 adhimukti와 adhimokṣa에서 의미상의 차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범어와 한역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는 차후에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소 자의적인 구분이기는 하나 원어를 제시할 때는 adhimuki로 하며, 한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勝解를, 경우에 따라서 信解를 사용하고자 한다.

2) AKBh p.54:23: adhimokṣo 'dhimuktiḥ.

www.kci.go.kr

*Abhidharmakośavyākhyā*에서는 승해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야쇼미트라가 설명하고 있는 승해의 세 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료하지 않다. 또한 십대지법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야쇼미트라가 다른 대지법과는 달리 승해에 대해 유독 자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필자의 주의를 끌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는 『구사론』의 승해에 대한 정의의 지나친 간명성과 야쇼미트라의 주석의 다양한 승해의 존재에 대한 기술 사이에서 일종의 갭과 같은 것을 느꼈다. 또한 한역에서 알 수 있듯이 信解라는 번역어는 믿음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승해에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지닌 승해에 대해서 필자의 문제의식의 발단이 된 야쇼미트라의 주석을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이해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2. 선행연구 및 논문의 목적

앞서 설명했듯이 『구사론』에서 勝解[3](adhimokṣa)는 십대지법 중 하나로 信解(adhimukti)라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 두 용어는 동일한 어근 adhi-√muc에서 파생된 것인데, 형태가 너무도 비슷하여 개념을 설명했다기보다는 단순히 동어반복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주석자 야쇼미트라는 승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4] 그런데 문제는

3) 승해(adhimukti)에 대해서는 해탈, 요달, 욕락, 성욕 등에 이르기까지 약 30개의 번역어가 있어 일관된 이해를 갖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荻原雲来 (1964-1974)『漢訳対照梵和大辞典』鈴木学術財団, p.35 참조.

4) 야쇼미트라가 주석(AKVy p.128:2-4)에서 들고 있는 승해의 세 가지 양상은 다음과 같다.
a. 그것(승해)의 대상의 속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adhimuktis tad-ālambanasya guṇato 'vadhāraṇam.)
b. 다른 사람들은 ruci라고 한다. (rucir ity anye.)

www.kci.go.kr

이 설명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승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야쇼미트라의 기술을 포함한 여러 주석서와 빠알리 니카야의 용례를 검토하여 정리한 연구로 사꾸라베 하지메(桜部 健)의 논문이 있다.[5]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승해는 그것(승해)의 인식대상을 확정하는 것(adhimuktis tad-ālambanasyāvadhāraṇam) ⇒ 심소
b. 승해는 ruci이다. (adhimuktiī ruciḥ) ⇒ 심소인 듯 하나 분명하지 않음.
c. 결정된 事象에 대하여 바로 그와 같이 확정하는 것(niścite vastuni yathaiva avadhāraṇam) ⇒ 심소
d. 승해는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cittasya viṣaye 'dhimokṣaḥ) ⇒ 심소
e. 대상에 대해서 의혹, 의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
f. 어의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a, b, c의 내용은 각주 4)에서 제시했던 야쇼미트라의 주석과 같다. 사꾸라베는 심소로서의 승해를 '대상을 확실히 포착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b의 ruci에 대해서 기호, 흥미, 욕구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상의 파악 혹은 경향인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6] 한편, 빠알리 니카야에서의 adhimukti

c. 요가수행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심이 선 대로 견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yathāniścayaṃ dhāraneti Yogācāra-cittāḥ.)

5) 桜部 健, 「勝解 adhimukitiについて」『佛教語の研究』, 京都・文栄堂書店, 1973, pp. 34-39.

6) 사꾸라베는 위의 논문에서 ruci를 심소로서, 대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승해의 티벳어역 mos pa가 ruci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하여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위의 논문 pp.37-38).

www.kci.go.kr

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염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adhimukti에는 크게 1) 아비달마와 유식계열의 제논서에서 쓰이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2) 빠알리 니카야에서 보이는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7] 사꾸라베의 논문은 adhimukti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그러나, 야쇼미트라의 세 가지 정의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a, b, c의 내용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사실상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승경전에서의 승해에 대한 연구로는 쿠루미야 엔슈우(久留宮 円秀)[8]의 논문이 있다. 쿠루미야는 『법화경』에서의 adhimukti와 동사 adhi-√muc의 용례를 상세히 열거한다. 명사 adhimukti는 "여래가 중생의 adhimukti를 아시고서 무상의 법을 설하신다"고 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동사의 형태에서는 상투적인 표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adhimucyate, adhimucyati가 śṛṇoti, śṛṇute(듣다)의 뒤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렇게 용례를 검토한 결과 adhimukti는 āśaya(의욕)에 근거한 것으로, 법을 듣고서 마음이 청정해 질 때 작용하는 심소라고 결론짓는다.

쯔까모또 케이쇼우(塚本啓祥)[9]도 『법화경』에 있어서의 adhimukti를 연구하였다. 쯔까모또는 adhi-√muc와 더불어 śrad-√dhā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 중 śrad-√dhā는 진여의 법에 대한 樂念으로서의 심소인데 반해, adhi-√muc는 무상정등각에 다가가는 것을 의도하는 마음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위의 쿠루미야의 연구에서 adhimukti가 āśaya(의욕)에 근거한 심소라고 한 것에 대해, 쯔까모또는 adhimukti를 심소로 보지 않고

7) 위의 논문 p.38 참조.
8) 久留宮 円秀, 「法華経の adhimukti」『大崎学報』134, 1981.
9) 塚本啓祥, 「法華経における信の構造」『宗教研究』246(64-3), 1983.

www.kci.go.kr

무상정등각을 향하는 경향이라고 보는 데 차이가 있다.

한편, 『구사론』의 승해에 대한 야쇼미트라의 주석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ruci'에 주목한 논문으로 요시무라 히로미(芳村　博実)[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요시무라는 사꾸라베(1973)에 의해 제시된 아비달마에서의 adhimukti의 의미, 즉 확신, 확정과 같은 의미에 대해 의미가 불명료하고, 설명이 지나치게 간명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Edgerton의 범어사전(Hybrid Sanskrit Dictionary)에 adhimukti에 대해 신통력(magic transformation) 등의 의미가 있음을 제시한다. 즉 adhimukti가 외적 대상에 대해 어떤 사태를 마음속에서 형상화하고, 그것을 정신집중에 의해 대상으로써 실현하는 마음의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과 진제가 동사형 adhi-√muc를 '起…願想', '假想見', '作是念願' 등으로 번역한 것을 근거로, 내적 대상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 요시무라는 '신해하여(adhimucyate)' 아미타불을 보거나, 극락에 이른다고 하는 『보현행원찬』과 『무량수경』의 용례를 들고 있다.[11] 즉, 이때의 adhimukti는 단지 논리적 이해나 확신이 아니라, 명상수행에 있어서 불보살과 법계 등이 '현현'하는 것으로, 이것이 야쇼미트라가 주석한 adhimukti(=ruci)의 의미라고 본다. 사꾸라베의 논문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 즉 승해의 신통력이라는 일면을 제시한 점, 그리고 adhimukti를 관상법과 연결시킨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논문이다. 단, ruci의 개념에 착목하기는 하였으나, ruci 자체의 용례에 대한 검토없이, 단지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야쇼미트라가 제시한 심소로서의 adhimukti와 ruci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해방식이 과연 주석자의 의도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10) 芳村博実, 「信解(adhimukti)の対象となる仏陀(Buddha)」『日本仏教学会年報』53, 1988.
11) 위의 논문 pp.57-62 참조.

www.kci.go.kr

그 이유는 십대지법을 해설함에 있어서 주석자 야쇼미트라로서는 먼저 『구사론』에서 심소법으로 설명된 승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나서 다른 adhimukti에 대해 소개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승논서에서의 승해에 대한 연구로는 쿠즈모또 노부미찌(楠本信道)의 두 편의 논문을 들 수 있다.[12] 쿠즈모또(1998)는 『대승장엄경론』 *Mahāyānasūtrālaṃkāra* 제10장 「明信品」(Adhimuktyadhikāro daśamaḥ)의 제9게송과 제10게송의 adhimukti의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대승장엄경론』 제10장 「明信品」 제9게송과 제10게송에서의 adhimukti는 사꾸라베가 주장하듯 심소로서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중생의 마음의 경향(inclin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쿠즈모또(1999)에서는 「명신품」 제10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信, 환희, 지혜, 專心, 신앙 등의 다양한 adhimukti의 근저에 '경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의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adhimukti의 연구에 있어서 사꾸라베의 위의 연구는 큰 기여를 하였으나, 그 연구의 범위를 아비달마 및 유식의 논서와 빠알리 니카야에서의 용례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adhimukti의 연구는 주로 대승의 경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결과 대승의 경론에 있어서의 승해는 사꾸라베가 제시한 승해의 개념과는 다소 다른 것이라는 식의 이해를 보이고 있다.[13]

그러나, 필자는 양자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비달마와 유식논서에서 adhimukti는 심소로 규

12) 楠本信道, 「adhimuktiの研究」『哲学』50通号, 1998; 「大乗荘厳経論における'adhimukti'の意味」『印度佛教学研究』94(47-2), 1999.

13) 芳村 博実(1988), 楠本 信道(1999)의 논문 참조. 사꾸라베가 제시한 adhimukti에 대해 그 이후 대승의 경론에서의 ahdimukti의 연구는 대부분 양자를 차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www.kci.go.kr

정되어 대승의 경론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나, 사꾸라베가 빠알리 니카야의 용례를 검토하여 제시한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기울이는 것, 혹은 경향을 가지는 것'이라는 측면과, 그 이후의 대승불교에서의 adhimukti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생의 성향, 경향(inclination) 등의 의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4] 본 연구의 목적은 야쇼미트라가 제시한 세 가지 승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야쇼미트라가 제시한 세 가지 승해와 대승불교에서의 승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3. 『구사론』 및 주석서에 있어서의 승해

그럼 여기서 『구사론』 본문의 승해의 기술과 주석서의 기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구사론』 본문의 승해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adhimokṣo 'dhimuktiḥ.[15]

범어 원문은 지나치게 간명하여 추가적 설명이라기보다 단지 동어반복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제 번역은 다음과 같다.

14) 사쿠라베가 adhimukti를 1) 아비달마와 유식계열의 제논서에서 쓰이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2) 빠알리 니카야에서 보이는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승불교에서의 승해는 대상의 확정이라는 인식론적인 성격의 아비달마의 정의와는 달리 주로 중생의 성향이라든가, 정등각에 대한 지향 등 정서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다.

15) AKBh p.54:23.

www.kci.go.kr

한역: 勝解謂能於境印可[16]

일역: [게송 중에서] 승해(adhimokṣo)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승해(adhimuktiḥ)인데, [즉 마음의 대상을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확실히 요해하는 것이다].[17]

한역의 경우 원문의 직역이 아니라 다른 문헌 등에 의해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사꾸라베의 일역 역시 문장을 보충하여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야쇼미트라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18]

① 승해는 그것(승해)의 대상의 속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제1정의라고 부르기로 한다.
② 다른 사람들은 'ruci'라고 한다 ⇒ 이를 제2정의라 부르기로 한다.
③ 요가수행의 마음을 가진 자(혹은 요가행파)들이 결심이 선 대로 堅持하는 것이라고 한다. ⇒ 이를 제3정의라 부르기로 한다.

야쇼미트라의 주석을 통해 승해에 다양한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실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명료하지 않다. 이에 유관 자료들을 동원하여 그 의미를 음미하여 보기로 한다. 단, 제2정의인 ruci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항목이므로 순서를 제1정의 → 제3정의 → 제2정의의 순으로 보기로 한다.

16) ≪阿毘達磨俱舍論≫卷4 <2 分別根品>: 「勝解謂能於境印可」(T29, no. 1558, p. 19, a21-22).
17) 桜部 健, 『倶舍論の研究-界・根品』法藏館, 1975, p.282.
18) AKVy p.128:2-4: adhimuktis tad-ālambanasya guṇato 'vadhāraṇam. rucir ity anye. yathāniścayaṃ dhāraṇeti Yogācāra-cittāḥ.

www.kci.go.kr

3-1. 야쇼미트라의 제1정의에 대한 고찰

야쇼미트라의 제1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1정의: 승해는 그것(승해)의 대상의 속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 (adhimuktis tad-ālambanasya guṇato 'vadhāraṇam.)

제1정의에 대해서는 앞서 사꾸라베의 위의 논문에서 기술했듯이 대상의 확정이라는 심소로서의 승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꾸라베(1973)에 따르면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란, '승해가 대상을 확실하게 이것은 이것이며, 그 외의 것이 아닌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19] 즉, 『구사론』 본문에서 너무 간명하게 동의어(adhimukti)를 가지고 정의되었던 adhimokṣa에 대해 주석자 야쇼미트라가 심소로서의 adhimokṣa의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구사론』에서 십대지법으로서의 adhimokṣa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3-2. 야쇼미트라의 제3정의에 대한 고찰

야쇼미트라의 제3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정의: 요가수행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혹은 요가행파의 사람들)이 '결심이 선 대로 堅持하는 것'이라고 한다.
> (yathāniścayaṃ dhāraṇeti Yogācāra-cittāḥ.)

19) 사꾸라베는 『유식삼십송』과 안혜의 『實義疏』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evam etan nāny-atheti, Triṃśikā; 'di ni 'di ltar yin no snyam ste, Tattvātha" 위의 논문 p.36 참조. 또한 세친의 『유식삼십송』에서의 adhimukti의 정의에 대해서 안혜의 *Triṃśikāvijñaptibhāṣya*의 기술을 참조할 수 있다(TrBh p.72:19-25).

www.kci.go.kr

제3정의와 관련하여 세친의 후기저작으로 간주되는 『대승오온론』과 무착의 저서 『아비달마집론』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 『대승오온론』의 정의: 승해란 무엇인가? 결심이 선 사상에 대해서 바로 그와 같이 확정하는 것이다.[20]
>
> 『아비달마집론』의 정의: 승해란 무엇인가? 결심이 선 사상에 대해서 확신이 선 대로 견지하는 것이다. 변동될 수 없는 것을 작용으로 한다.[21]

승해에 관한 『대승오온론』, 『아비달마집론』의 기술과 위의 야쇼미트라의 기술은 서로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데, 무착, 세친보다 후대의 인물인 야쇼미트라가 『대승오온론』이나 『아비달마집론』 등을 참조하여 다소 수정한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야쇼미트라의 주석에 '결심이 선 사상에 대해서(niścite vastuni)'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결심이 선 사상에 대해서(niścite vastuni)'라는 말은 승해가 동시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식학파의 심소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별경심소임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요가수행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Yogācāra-cittāḥ)'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22] 여기서 야쇼미트라의 승해에 대한 제3정의를 『대승오온론』과 『아비달마집론』의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게 된다. 야쇼미트라의 주석과 『대승오온론』,

---

20) PSk p.5:9-10: adhimokṣaḥ katamaḥ? niścite vastuni yathaiva avadhāraṇam.

21) AS p.6:5: adhimokṣaḥ katamaḥ? niścite vastuni yathāniścayaṃ dhāranā. asaṃ-hāryatākarmakaḥ.

22) 주석에서 어떤 문헌을 인용할 때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략하면 의미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생략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요가수행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Yogācāra-cittāḥ)이란 말이 곧 유식학파의 논서를 참조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niścite vastuni'라는 어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www.kci.go.kr

『아비달마집론』이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대승오온론』과 『아비달마집론』을 참조하지 않고 이 구절만을 읽는다면, 별경심소임을 지시하는 표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결심이 선 사물에 대해서(niścite vastuni)'라는 표현이 없음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만일 양자가 같은 것이라면 야쇼미트라의 정의는 『대승오온론』과 『아비달마집론』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승해가 별경심소임을 명백하게 지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다. 그런데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본다면 이때의 승해는 반드시 심소라고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야쇼미트라는 'Yogācāracittāḥ'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표현이 요가수행을 통해 정신적 경지(citta)를 획득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혹은 학파로서의 요가행파를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요가수행과 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야쇼미트라가 요가행자와 관련된 승해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사론 제2장 22게송과 주석(bhāṣya)에 대해 야쇼미트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물 등) 가운데 그것들(불 등)의 존재는 종자(bīja)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경량부[의 주장]이다. '종자로서(bījataḥ)'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서(śaktitaḥ)' 또한 '능력으로서(sāmarthyataḥ)'라고 하는 의미이다. '자체로서(svarūpata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실체(dravya)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힘이(śakti)라는 것은 실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힘)으로 인해, 요가행자들의 특별한 승해(yogibhir adhimokṣa- viśeṣeṇa)에 의해서 금이라는 구성 요소, 은이라는 구성요소, 동이라는 구성요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등등의 구성요소들이 만들어 진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www.kci.go.kr

답한다. "이 나무 기둥에 다양한 종류의 구성요소(界)가 [있다]" 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곳(나무기둥)에 존재하는 구성요소의 힘에 대해서는 세존에 의해 이와 같이 설해졌다. 왜냐하면 "그 곳(나무기둥)에는 아주 많은 금, 은 등이 그 자체로(완성된 형태로) 존재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기 때문이다.[23]

위의 내용은 색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4대 등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서로 혼재하는 가운데 잠재태(bīja)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통력에 의해서 그 구성요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쇼미트라 자신이 승해에 대해 요가수행과의 관련 속에서 이와 같은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내용은 위에서 든 선행연구 가운데 요시무라(1988)가 들고 있는 Edgerton의 범어사전의 adhimukti가 신통력(magic transformation)을 의미하는 용례와 유사하다. 요시무라는 Edgerton에 실린 용례 중 왕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 선인을 돕기 위해 한 장로가 왕 앞에서 궁궐을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율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24]

이때의 승해는 일종의 신통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25] 실재로 나무에

---

23) AKVy p.125:5-11: *bījatas teṣu teṣāṃ bhāvo na svarūpata iti apara* iti Sautrāntikāḥ. *bījataḥ* śaktitaḥ sāmarthyata ity arthaḥ. *na svarūpato* na dravyata ity arthaḥ. śaktir eva hi nānā-vidhā 'sti yayā yogibhir adhimokṣa-viśeṣeṇa suvarṇa-dhātū rūpya-dhātus tāmra-dhātur ity evam-ādayo dhātvaḥ kriyante. kasmād ity āha. *saṃty asmiṃ dāru-skandhe vividhā dhātava iti vacanāt*. dhātu-śaktayo hi tatraivaṃ Bhagavatoktāḥ. na hi tatrātibahūnāṃ suvarṇa-rūpy' ādīnāṃ svarūpato 'vakāśo 'stīiti.

24) 위의 요시무라(1988) 논문 p.55 참조. Edgerton에 실린 원문과 해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pāsādaṃ suvaṇṇaṃ ti adhimucci, so ahosi sabbasovaaṇṇamayo.
영역: He concentrated his interest on the palace, with the thought - (it is to be) gold ! - and it became entirely made of gold(p.14).

25) 한편 「성문지」에 신통력과 관련된 승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www.kci.go.kr

서 금, 은 등을 추출해 내고, 성을 황금으로 변화시킨 것인지, 혹은 단지 관념 속에서 일어난 일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26] 그러나 이를 승해의 제1정의와 비교해 보면, 제1정의로서의 승해가 대상을 단지 수용적으로 확정하는 심소인데 반해, 제3정의는 대상에 대해 요가수행자가 자신의 이해방식을 결정한대로(yathāniścayaṃ) 적용시켜 대상에 변화를 초래하는, '변화와 관계된 개념'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요가수행과 관련된 맥락으로 '승해작의(adhimukti-manasikāra)'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dhimuc-'란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방식으로 집중하다", "의도적으로(많은 경우 자의적으로) 특정방식으로 관념 속에서 현전화하거나 觀想하다"라고 한다.[27] 이러한 정의는 야쇼미트라의

≪瑜伽師地論≫卷3 : 「又得神通者。由心勝解力。變大地等成金銀等。」(T30, no. 1579, p. 290, c21-22)

또한, 『보살지』에도 보살의 신통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轉變者。謂佛菩薩依定自在。若於其地。起水勝解即令成水。如實非餘。火風勝解亦復如是。若於其水起地勝解即令成地。如實非餘。火風勝解亦復如是。若於其火起地勝解即令成地。如實非餘。水風勝解亦復如是。若於其風起地勝解即令成地。如實非餘。水火勝解亦復如是。若於一切起餘勝解。即隨勝解如實非餘。如於大種互相轉變。色香味觸當知亦爾。若於草葉牛糞泥等。起於飲食車乘衣服嚴飾資具種種塗香華鬘勝解。即隨勝解如實非餘。若於沙石瓦礫等物。起於末尼真珠琉璃螺貝壁玉珊瑚勝解。即隨勝解如實非餘。若於諸山雪山王等起金勝解。即隨勝解如實非餘。若於一切起餘勝解。即隨勝解如實非餘。若於好色有情起惡色勝解。於惡色有情起好色勝解。於俱非有情起好色惡色勝解。於俱有情起俱非勝解。即隨勝解如實非餘。如於好色惡色。於具支節不具支節及肥瘦等當知亦爾。如是於餘所有自相可變色物起餘勝解。皆隨勝解一切轉變。如實非餘。是名轉變。」(T30, no. 1579, p. 491, b27-p. 492, b13)

이때의 승해는 사물의 변화(轉變)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지, 혹은 지, 수, 화, 풍 등의 색법에 대해 승해를 일으켜서 변화(轉變)를 초래하는 방식이다.

26) 승해에 의해 초래된 변화가 실재로 사물이 변화했음을 의미하는지 단지 문학적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관념 속에서든, 실재로이든 승해에 변화와 관련된 일면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www.kci.go.kr

제3정의인 "yathāniścayaṃ dhāraṇeti Yogācāra-cittāḥ" 와도 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2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야쇼미트라의 제3정의가 선대의 유가행파 문헌을 참조하여 별경심소로서의 승해를 기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론해 볼 경우, 단지 수용적으로 대상을 확정하는 심소로서의 기능 이외에, 야쇼미트라의 주석에 언급되어 있고, 또 Edgerton에 소개된 바와 같이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관상수행 가운데 대상을 자의적으로 산출하는 식의, 대상에 대해서 변화를 초래하는 可變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3. 야쇼미트라의 제2정의에 대한 고찰

야쇼미트라의 제2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정의: rucir ity anye. (다른 사람들은 'ruci'라고 한다.)

매우 간략한 정의이다. ruci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대상을 좋아하고, 바라고, 열망한다는 의미와, 빛과 顯現(appearance)이라는 의미가 있다.[29]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ruci가 대상을 좋아하고, 바

27) 안성두(2006) p.132 참조.

28) 관상수행과 관계된 adhimukti에 대해서는 김성철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었다. 본 논문을 통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필자는 야쇼미트라의 정의와 『대승오온론』, 『아비달마집론』의 정의 사이의 관계에 집착하여, 야쇼미트라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대승오온론』, 『아비달마집론』과의 관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해석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김성철 교수님의 조언은 필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야쇼미트라의 정의를 그 자체로 볼 때에 관상수행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상수행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안성두,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불교학리뷰1호, 2006년)과 김성철, 『유가사지론』〈성문지〉의 입출식념(명상치료연구, 2007년) 등의 연구가 있다.

www.kci.go.kr

라고, 갈망하고, 혹은 믿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인식론상에 있어서의 확신과 같은 심소로서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사론』에서의 ruci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사론』에 ruci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용례가 보인다.

> 어리석음과 근[기]와 좋아하는 것(ruci, 樂)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蘊 등의 세 교설이 있다.[30]

이에 대해 야쇼미트라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 "어리석음과 [근]기와 좋아하는 것(ruci)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迷妄과 慧와 승해(adhimokṣa)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이다.[31]

---

29) 빠리어 사전인 쿠모이(雲井昭善)의 사전(パーリ語佛教辞典)에는 光, 喜樂, 欲, attno ruciyā (自己の好みで), yathā-rucim(好きな通りに) 등의 의미가 있으며, 동사형으로는 기뻐하다 (dhammaṃ rocimi) 등의 용례가 보인다. 미즈노(水野)의 사전의 설명도 이와 유사하다. 모니엘의 범어사전에는 light, appearance, pleasure, be desirous of, be longing for 등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梵和大辭典』에는 樂, 欲등의 의미가 있다. 한편, 구사론 색인을 보면 ruci는 'dod pa, dad pa로 藏譯되어 있는데, 'dod pa는 Jäschke의 사전에 to have a mind, to wish, to desire, to aspire after 등의 뜻이 있으며, 이는 산스크리트어 kāma(愛欲)의 번역어로 쓰이기도 한다. 한편, dad pa의 의미는 동사로는 to wish, to believe 등이며 명사로는 faith이다. 이에 대한 한역은 (意)樂, (愛)樂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유가사지론 색인에는 (1) dga' ba(to rejoice, to wish, glad) 樂, (2) 'dod pa 喜樂, 欲, 欲樂 (3) 'dod par gyur pa 愛樂 등으로 되어 있다.

30) AKBh p.24:9: mohendriyarucitraidhāt tisraḥ skandhādideśanāḥ(1-20cd). ≪阿毘達磨俱舍論≫卷1<1 分別界品>「愚根樂三故 說蘊處界三」(T29, no. 1558, p. 5, b3). 번역은 桜部 健『倶舎論の研究-界・根品』法藏館, 1975, p.178참조.

31) AKVy p.47:15-16: mohendriyaruci-traidhād iti. saṃmohaprajñā'dhimokṣatraidhād ity arthaḥ.

www.kci.go.kr

위 문장을 통해 세친이 ruci라고 표현한 것을 야쇼미트라는 adhimukti라고 주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기호, 성향 등을 의미하는 ruci가 adhimukti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adhimukti는 심소로서 대상에 대해 인식론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대상에 대한 확정을 바탕으로 한 대상에 대한 경향, 혹은 성향 등과 관계가 있는 말인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중요하다. 즉, 사꾸라베(1973)에서는 adhimukti가 대상을 좋아하는 성향 등을 의미하는 용례는 아비달마 논서가 아닌 빠알리 니카야에서 확인된다고 했는데,[32] 위의 주석을 보면 야쇼미트라에 의해서 아비달마 논서 가운데에 adhimukti에 기호, 성향과 같은 의미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adhimukti의 니카야에서의 용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adhimukti=ruci'의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33] 필자는 이것을 편의상 '야쇼미트라가 인정하는 ruci로서의 adhimukti'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승해의 제2정의 ruci로서의 adhimukti의 의미가 밝혀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주석자 야쇼미트라는 adhimukti를 ruci라고 하지 않았다. 그의 주석에는 "다른 사람들은(anye) ruci라고 한다(iti)"라고 되어 있다. 이 표현은 자신의 견해를 직접 밝히는 것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32) 사꾸라베 위의 논문 pp.37-38 참조.

33) adhimukti와 ruci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미즈노 코우겐(水野 弘元)의『パーリ佛教を中心とした佛教の心識説』을 참조할 수 있다. 미즈노에 의하면『순정리론』에 경량부 상좌의 설로 勝解不別存說이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 勝解不別存說에 따르면 승해가 대상을 결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智와 같고, 그것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信과 欲과 같으니, 승해의 별체가 설해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부는 반론을 펼치나, 적어도 경량부의 입장에서는 신해에 대해 智, 信, 欲 등과 유사한 성질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欲과 같다고 하는 부분에서 ruci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水野 弘元,『パーリ仏教を中心とした佛教の 心識説の研究』ピタカ, 1978, p.458 참조.

www.kci.go.kr

주석자인 '야쇼미트라가 인정하는 ruci'와는 다른 용례의 ruci가 존재하는 것일까?

위의 검토를 통해 adhimukti에 단지 인식론적인 대상의 확정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서 adhimukti가 일반적으로 불교에 있어서 믿음(信)을 나타내는 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34] 믿음(信)은 원시불교이래로 불교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수행 덕목이요, 아비달마불교에 있어서는 십선지법으로 분류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특히 대승불교에 있어서 더욱 더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승의 경론에서 ruci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대승 경론에서의 ruci의 용례

선행연구 중에서 요시무라의 연구는 ruci와 대승의 경전을 연결하여 해석하였으나, ruci 자체의 용례에 대한 검토 없이 사전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것을 adhimukti의 용례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ruci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ruci 자체의 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보살지』「發心品」에서 보살이 무상정등각에 대해 초발심을 낼 때, 무

34) adhimukti와 信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가운데 소개한 쿠즈모또(1989)의 연구는 『대승장엄경론』의 제10장 「明信品」(Adhimuktyadhikāro daśamaḥ) 의 26種의 adhimukti의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이때 adhimukti의 기본적인 의미는 傾向(inclination)이며, 이것이 종교적 대상과 관련될 때 信仰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石上(1960)에서는 불교의 信을 나타내는 말로 śraddhā, prasāda, adhimukti를 들고 있다. 石上善應 「仏典に現われたるbhakti信の用例」『印度佛教学研究』16－2, 1960, p.487참조.

www.kci.go.kr

상정등각에 대해 열망(혹은 희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해지고 있는데, 이때의 열망이 'ruci'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 四力이란 무엇인가? 자력, 타력, 인력, 가행력이다.
>
> 그 중 무상정등각에 대한 열망(ruci, 愛樂)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 생겨난 것-이것이 初發心을 위한 보살의 자력이라 말해진다. 한편 무상정등각에 대한 열망(ruci)이 타자의 능력에 의해 생겨나는 것- [이것이] 初發心을 위한 보살의 타력이라 말해진다.[35]

한편, 같은『보살지』「發心品」에서 ruci와는 다른 표현으로 무상정등각에 대한 열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구절도 있다.

> 이와 같이 스스로의 보리와 중생의 이익을 希求(prārthana)하는 그(초발심을 내는 보살)는 [보리]심을 낸다. 그러므로 그 발심은 희구하는 것(prārthana)을 行相으로 삼는다.[36]

위의 두 인용을 살펴보면 사용된 어휘가 ruci와 prārthana라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 그러나 같은『보살지』의「發心品」에서 무상정등각을 향하여

---

35) BoBh p.17:7-12: catvāri balāni katamāni. adhyātmabalaṃ parabalaṃ hetubalaṃ prayogabalaṃ ca. tatra svaśaktipatitā yā rucir anuttarāyāṃ samyaksaṃbodhau. idam ucyate bodhisattvasyādhyātmbalaṃ cittasyotpattaye. paraśaktisamutpāditā tu rucir anuttarāyāṃ samyaksaṃbodhau bodhisattvasya parabalam ity ucyate cittasyopattaye.
≪瑜伽師地論≫卷35<2發心品> :「云何四力。一者自力。二者他力。三者因力。四者加行力。謂諸菩薩由自功力能於無上正等菩提深生愛樂。是名第一初發心力。又諸菩薩由他功力能於無上正等菩提深生愛樂。是名第二初發心力。」(T30, no. 1579, p. 481, c14-19)

36) BoBh p.12:9-11: sa evam ātmanaś ca bodhiṃ sattvārthaṃ ca prārthayamānaś cittam utpādayati. tasmāt sa cittotpādaḥ prārthan'ākāraḥ.
≪瑜伽師地論≫卷35<2發心品> :「如是發心定自希求無上菩提。及求能作有情義利。是故發心以定希求 為其行相。」(T30, no. 1579, p. 480, c1-3)

www.kci.go.kr

초발심을 낼 때 반드시 열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맥락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심은 희구하는 것(prārthana)을 行相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초발심에 있어서 '열망' 혹은 '희구'가 매우 본질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대승장엄경론』제8장「成熟品」제1게송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보살의 성숙에 대해 망라한 게송이 있다.
> 希求(ruci), 청정한 믿음, 寂靜, 연민, 인내, 聰慧, 강력함, 견고함, 여러 지분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것이 勝者의 子에 있어서 성숙의 특징이다.[37]

이 중 希求(ruci)에 대해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희구하는 것(ruci)이란 대승의 敎法(mahāyānadeśanādharma)을 [희구하는 것이다].[38]

『대승장엄경론』은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무착, 세친 시대에 그 이전의 여러 대승경전을 망라하여 대승경전의 본의를 조직적으

37) MSA(1) p.155:1-3: bodhisattvaparipāke saṃgrahaḥ ślokaḥ – ruciḥ prasādaḥ praśamo 'nukaṃpanā kṣamātha medhā prabalatvam eva ca. ahāryatāṅgaiḥ samupetatā bhṛśaṃ jinātmaje tat paripākalakṣaṇaṃ(8-1).
≪大乘莊嚴經論≫卷2<9 成熟品> :「欲信捨悲忍 念力堅支具 應知自成熟 此九皆上品」(T31, no. 1604, p. 600, a28-b2)
원문 및 번역은 長尾雅人,『大乘莊厳経論』和訳と註解—長尾雅人研究ノート(1)長尾文庫, 2007, p.155 참조.

38) MSA(1) p.155:4 rucir mahāyānadeśanādharme. 원문 및 번역 상동 참조.

www.kci.go.kr

로 기술한 논서인데, 이 논서에서 대승의 敎法을 희구하는 것을 'ruci'라는 표현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대승의 교법을 희구한다는 것은 앞서 제시한 『보살지』에서 무상정등각에 대한 열망(ruci), 혹은 희구(prārthana)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본질은 무상정등각에 대해 발심하여 성불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승의 교법을 희구한다는 것은 곧 무상정등각에 대해 발심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리고, 보살의 성숙을 기술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ruci를 기술한 것은 ruci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또한 번역어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번역자인 波羅頗迦羅蜜多羅가 ruci를 '希求'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보살지』에서 현장은 ruci를 愛樂이라 하였고, prārthana를 希求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ruci가 希求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를 통해 초발심을 일으킬 때에 무상정등각에 대해 ruci 혹은 prārthana를 내는 것은 내용상에서 뿐만 아니라, 의미상에 있어서도 동의어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승장엄경론』의 각 품의 제목은 『보살지』의 品目과 일치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승장엄경론』이 『보살지』에 근거하여 저술되었다고 본다.[39]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상정등각 혹은 대승의 교법에 대해서 열망(혹은 희구)한다는 표현이 『보살지』나 그 이외의 대승경전에 있어서 ruci를 포함한 여러 유사한 어휘로 표현되었다가 이를 후대의 논사인 무착(혹은 세친)이 『대승장엄경론』에서 ruci로 정리하고 규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법화경』에서 무상정등각에 대한 열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39) 水野弘元 編, 『佛典解題事典』, 春秋社, 2001, p.139 및 小谷信千代, 『大乘莊嚴經論の研究』, 文栄堂, 1982, pp.43-47 참조.

www.kci.go.kr

저희들은 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또는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보살의 신통(vikrīḍite, 神通), 여래의 신통에 대해서 열망(spṛhā, 喜樂)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또한 삼계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늙고 기력이 쇠하여서, 그리하여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보살들에게 무상정등각을 지도하고 또한 가르쳤으면서도, 그러나 세존이시여,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spṛhācitta, 好樂之心)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40]

위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것과는 조금 다른데, 성문제자인 사리불이 무상정등각과 여래의 신통에 대해 열망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다. 즉, 사리불은 무상정등각을 보살들에게 지도하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열망하는 마음(spṛhācitta)은 내지 않았는데, 알고는 있었으나 열망하지 않았음이 자신들의 문제였다고 고백한다. 『반야경』과 함께 초기 대승경전으로 분류되는 『법화경』에 있어서는 여래와 보살의 신통력과 무상정등각에 대한 열망이 ruci가 아닌 spṛhā로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불보살의 신통력과 무상정등각 등 대승불교적인 요소들에 대한 열망을 중요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승의 경론에서 대승의 교법과 무상정등각에 대하여 열망하는

40) SP pp.94:20-95:5: nāsmābhir eṣu buddhadharmeṣu buddhakṣetravyūheṣu vā bodhisattvavikrīḍiteṣu vā tathāgatavikrīḍiteṣu vā spṛhotpāditā. tat kasya hetoḥ? yac cāsmād bhagavaṃs traidhātukān nirdhāvitā nirvāṇasaṃjñino vayaṃ ca jarājīrṇāḥ. tato bhagavann asmābhir apy anye bodhisattvā avavaditā abhūvann anuttarāyāṃ samyaksaṃbodhav anuśiṣṭāś ca. na ca bhagavaṃs tatrāsmābhir ekam api spṛhācittam utpāditam abhūt. 번역은 坂本幸男・岩元 裕 訳, 『法華経(上)』, 岩波書店, 1963, pp.222-225 참조.
≪妙法蓮華經≫卷2<4信解品> : 「於菩薩法——遊戲神通、淨佛國土、成就眾生——心不喜樂。所以者何? 世尊令我等出於三界, 得涅槃證。又今我等年已朽邁, 於佛教化菩薩阿耨多羅三藐三菩提, 不生一念好樂之心。」(T09, no. 262, p. 16, b16-20)

www.kci.go.kr

마음을 표현할 때 ruci와 함께 prārthana, spṛhā 등이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승의 경전을 정리한『대승장엄경론』에서는 그 이전에 여러 형태로 표현되던 열망을 ruci로 규정하였다. 물론 대승의 경론에 있어서의 ruci의 의미에 좋아함, 바람 등의 성향과 관계되는 용례도 있으나, 그 경우의 ruci는『구사론』및 야쇼미트라의 주석서와 대승의 경론에 모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야쇼미트라 자신이『구사론』의 주석에서 사용한 ruci의 의미와의 차별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반면 대승의 경론에 있어서 ruci가 대승불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들, 즉 대승의 교법과 여래와 보살의 신통, 무상정등각 등과 함께 쓰여 그러한 대승적 요소들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 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승의 경론에서만 볼 수 있는 용례이다.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야쇼미트라가 말한 '다른 사람들(anye)'이란 바로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추론은 야쇼미트라의 학파적 정체성과 관계된다. 효오도 카즈오(兵藤一夫)에 따르면 야쇼미트라는『구사론』의 주석에서 경량부임을 자인하는데, 경량부는 教証과 理証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성향이 있고, 유가행파의 제논서에 친숙하였으며, 야쇼미트라 자신 또한『유가사지론』,『대승오온론』등을 직접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다고 한다.[41]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야쇼미트라는『유가사지론』의『보살지』나『대승장엄경론』에서 ruci가 무상정등각 등에 대한 열망(혹은 희구)을 지시하는 특별한 용례가 있음을 알고, 이것을 경량부인 자신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ruci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ruci라고 한다(anye rucir ity)"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41) 야쇼미트라의 학문적 입장에 대해서는 兵藤一夫,「経量部師としてのヤショーミトラ」, 桜部建博士喜寿記念論集『初期仏教からアビダルマ』平楽寺書店, 2002, pp.315-331 참조.

www.kci.go.kr

5. 결론

이상의 검토 결과를 정리해 보면, 승해에 대한 야쇼미트라의 세 가지 정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adhimuktis tad-ālambanasya guṇato 'vadhāraṇam → 인식론적 확정/확신(심소).
2. rucir ity anye → 무상정등각을 본질로 하는 대승불교적 요소들에 대한 열망/희구.
3. yathāniścayaṃ dhāraṇeti Yogācāra-cittāḥ → 요가수행에 의한 신통력 등 변화를 초래하는 확신.

〈제1정의〉는 심소로서의 승해로, 인식대상에 대해 인식론적으로 확정 하는 것이다. 〈제3정의〉는 요가수행과 깊이 관련된 개념으로, 외계의 事象에 대한 신통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관상수행에서의 승해작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심소로서의 승해가 수동적이고 수용적인데 반해, 요가수행과 관련된 승해의 〈제3정의〉는 외적 혹은 내적 대상에 대해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可變的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정의〉는 본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인데, 경량부임을 자인하는 야쇼미트라 자신이 adhimukti를 ruci로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ruci라고 한다"고 하여 자신의 이해방식과는 다른 ruci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한편, 대승의 경론에 있어서 무상정등각, 대승의 교법 등에 대해 열망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시되었는데 이때의 열망(혹은 희구)이 ruci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42] 그러므로 야쇼미트라

42) 『법화경』의 adhimukti(adhi-√muc)의 용례를 검토하고 이를 무상정등각에 다가가는 것을

www.kci.go.kr

가 소개하는 "다른 사람들은 ruci라고 한다"고 하였을 때의 ruci는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ruci를 지시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다.

사꾸라베(1973)는 위의 세 가지 정의를 모두 심소라고 하여 그 특징을 다소 모호한 형태로 남기고 있는데, 이와 달리 야쇼미트라는 당시에 존재했던 승해의 諸相을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ruci를 통해서는, 야쇼미트라에 의해 비록 자신의 입장과 다른 계통의 불교를 소개하는 맥락이긴 하지만, 대승불교와 관련된 승해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상으로 야쇼미트라가 제시한 승해의 세 가지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이로써 본 연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adhimukti에 대한 연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 중에서 특히 ruci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지 ruci가 무상정등각 등 대승적 요소에 대해 열망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무상정등각 등의 대승적 요소에 대한 열망이 강조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었을까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43] ruci의 용례를 대승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더욱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의도하는 마음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고 한 塚本啓祥(1983)의 논문은 본 연구에서 밝힌 ruci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요시무라(1988)가 adhimukti를 선정수행과 관련지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ruci 자체의 용례 또는 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약 호

AKBh *Abhidharmakośabhāṣya*. Pradhan, P., ed. *Abhidharmakośabhāṣyam of Vasubandhu*. 2d ed. Tibetan Sanskrit Work Series 8. Patna: Kashi Prasad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5.

AKVy *Sphuṭārthā Abhidharmkośavyākhyā*. Wogihara Unrai, ed. *Sphuṭārthā Abhidharmkośavyākhyā*: The Work of Yaśomitra. Tokyo: Sankibo Buddhist Book Store, 1971.

AS *Abhidharmasamuccaya*. Pradhan, P., ed. *Abhidharmasamuccaya* of *Asanga*. *Visva*-Bharati Studies12. Calcutta: Visva-Bharati Santiniketan, 1950.

BoBh *Bodhisattvabhūmi*. Wogihara Unrai, ed. *Bodhisattvabhūmi*. 1936. Reprint. Tokyo: Sankibo Buddhist Book Store, 1971.

MSA *Mahāyānasūtrālaṃkāra*. Darbhanga, ed. *Mahāyānasūtrālaṃkāra of Asaṅga*. Buddhist Sanskrit Texts, No.13, 1970.

PSk *Pañcaskandha*. Li Xuezhu and Ernst Steinkellner. ed. *Vasubandhu's Pañcaskandha*. Beijing-Vienna 2008.

SP *Saddharmapuṇḍarikasūtra*. U. Wogihara and C. Tsuchida ed. *Saddharmapuṇḍarikasūtra*. Tokyo: Sankibo Buddhist Book Store, 1958.

TrBh *Triṃśikāvijñaptibhāṣya*. H. Buescher ed. *Sthiramati's Triṃśikāvijñaptibhāṣya*: *Critical Editions of the Sanskrit Text and its Tibetan Translation*, Wien, 2007.

사전류

荻原雲来『漢訳対照梵和大辞典』鈴木学術財団, 1964-1974.

Flanklin Edgerton著 Hybrid Sanskrit Grammar and Dictionary, NewHaven:

www.kci.go.kr

Yale Univ. Press, 1953.
H. Jäschke著 A Tibetan-English Dictionary, 臨川書店 1987.
Monier-Williams著 Sanskrit-English Dinctionary, Oxford, 1988.

참 고 문 헌

김성철 「『유가사지론』〈성문지〉의 입출식념」, 명상치료연구, pp.63-90, 2007.
권오민 『아비달마불교』민족사, 2003.
안성두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불교학리뷰1호, pp.125-159, 2006.
金蔵円照編『法華経の成立と展開』, 平楽店書店, 1970.
勝又俊教『佛教における心識説の研究』, 山喜房, 1961.
坂本幸男·岩元 裕 訳『法華経(上)』, 岩波書店, 1963.
水野弘元『パーリ佛教を中心とした佛教の心識説』,ピタカ, 1975.
水野弘元 編『佛典解題事典』, 春秋社, 2001.
袴谷 憲明・荒井裕明『大乗荘厳論』, 瑜伽唯識部12, 大蔵出版, 1997.
塚本啓祥 「法華経における信の構造」,『宗教研究』246(64-3), 1983.
平川 彰・平井 俊栄 共著『倶舎論索引』第1部, 大蔵出版第, 1983.
桜部 健「勝解 adhimukitiについて」,『佛教語の研究』, 京都・文栄堂書店, 1973.
『倶舎論の研究-界・根品』, 法蔵館, 1073.
楠本信道 「adhimuktiの研究」,『哲学』50通号, 1998.
「大乗荘厳経論における'adhimukti'の意味」,『印度佛教学研究』94(47-2), 1999.
久留宮円秀 「法華経の adhimukti」,『大崎学報』134, 1981.

www.kci.go.kr

芳村博実「信解(adhimukti)の対象となる仏陀(Buddha)」,『日本仏教学会年報』53, 1988.
香川考雄「浄土経典における<信>の問題」,『インド佛教学研究』32, 1968.
兵藤一夫「勝解(adhimukti)・回向(pariNamana)・随喜(anumodana)」,『大谷学報』301, 2001.
「経量部師としてのヤショーミトラ」, 桜部建博士喜寿記念論集『初期仏教からアビ ダルマ』, 平楽寺書店, pp.315-331, 2002.
石上善應「仏典に現われたるbhakti信の用例」,『印度佛教学研究』16－2, 1960.
小谷信千代『大乘莊嚴經論の연구』, 文栄堂, 1982.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f Adhimukti -Focusing on the Yaśomitra's Commentary-

Ha, young su

Geumgang Univ.

As for adhimukti, there are nearly 30 kinds of translations in chinese translation, an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have a consistent understanding for adhimukti. In this study, I am going to examine the concept of adhimukti, focusing on the Vasubandhu's *Abhidharmakośabhāṣya* and the commentary of Yaśomitra, Sphuṭārthā *Abhidharmkośavyākhyā*.

'Adhimukti' was presented as one of mahābhūmikas(mental states, 十大地法) in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Commenting on adhimukti, Yaśomitra introduced it's three aspects. However, it is not so clear what those three aspects of adhimukti mean. In this study, I would try to illuminate what those adhimuktis are indicated.

Of course, a considerable researches already have been accumulated about adhimukti. However, a comprehensive study for adhimukti commented by Yaśomitra is not hardly found, except for Hajime Sakurabe(桜部 健,

www.kci.go.kr

1973).

The main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to examine examples of adhimukti in the relevant literatures. In addition to this, the scholastic identity of Yaśomitra is need to be considered.

Through this study, it would be clear that Yaśomitra is showing a various aspects of adhimukti. And we could know that one of them is deeply connected with Mahāyāna Buddhism.

Key Word: adhimokṣa/adhimukti, ruci, Vasubandhu, *Abhidharmakośabhāṣya,* Yaśomitra, *Sphuṭārthā-Abhidharmkośavyākhyā*, *Bodhisattvabhūmi*

2010년 12월 5일 투고
2010년 12월 18일 심사완료
2010년 12월 20일 게재확정

www.kci.go.kr